

시 정 질 문 서

【김덕균 의원】

86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심곡2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덕균 의원입니다.

오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과 큰 기대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 정론지로써 책무를 다하시는 언론사 기자단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86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정열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항상 감사를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매우 어려운 시기인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국가 정책과정의 의견 분열이나 학교 교육의 문제점, 힘겨운 서민 살림살이 해결 등 풀어야 될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풀어야 할 선행과제가 무엇인지 깊이 인식하고 의회나 시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공동 노력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장마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수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은 없는지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사전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비가 온 뒤 맑게 갠 높고 푸른 하늘처럼 우리 시민들에게도 새로운 희망과 여유를 줄 수 있는 노력을 시민 모두 함께 기울여야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럼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부천시의 재정 운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무릇 각 가정의 살림도 세대원이 벌어오는 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 계획을 세워서 불필요한 곳에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여유 돈은 재테크를 통하여 재산을 늘리는 등 알뜰하게 가계살림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시의 살림도 외부로부터 빚을 내지 않고 자주재원으로 시의 살림을 꾸려 나가는 것이 온당하다 할 것입니다.

부천시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시금고를 시중은행 두 곳에 분산 예치하면서 이자율이 조금 더 높다 하여 외국계 은행에 더 많은 유동자금을 예치함으로써 우리가 적극 보호하여야 할 국내 은행의 경영 악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 자본의 토종 기업 자본잠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2005년도 기준 부천시의 기금현황 및 은행별 예치금액과 이자율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 시금고의 운용계획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부천체육관, 종합운동장, 송내사회체육관, 소사체육센터 등에는 우리 시의 문화도시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시민을 위한 문화·체육 공간으로써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시설물 관리와 그에 따른 운영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으나 종합운동장 내에는 각종 비영리단체와 공예체험관, 박물관이 입주되어 있고 사용 주체에서 활용공간만큼 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은 타당할 것입니다.

운영 주체의 사용공간 계약 관계나 임대료 부과 측면에 있어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시설관리공단과 사용 주체 간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 주체별 임대료 부과 차별을 두는 계약내용은 무엇이며 비영리단체에

대한 임대료의 인하계획은 없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비영리단체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시설물 관리 운영 방법을 좀더 효율적인 계획이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중동 신도시 공영주차장 제4호 및 제6호 주차장의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잡음이 끈이질 않더니 결국 소송에 휘말리어 사업 진척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공영주차장 제4호, 제6호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도로점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한전주는 부천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규정에 의거 도로를 점용하여 설치되는 한전주에 대하여 1본당 300원씩을 매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기공사에서는 한전주를 이용하여 드림씨티, 하나로통신 등으로부터 도로점용료 징수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사용료를 받아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전 측에서는 무분별하게 여러 통신회사로부터 가공선로를 설치토록 하여 한전주마다 종류를 알 수 없는 케이블이 매달려 있어 자칫 안전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은 물론 도시 미관에도 크나 큰 저해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한전측과 협의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반드시 해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원미구 심곡2동 375번지에 위치하였던 원미구보건소가 원미구 중2동 1119번지로 2005년 1월 24일 이전해 감에 따라 구 원미구보건소는 전 임 원혜영 시장 재임 당시에 공원과 주차장으로 부지를 활용하기로 결정된 바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구 원미구보건소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자를 물색하기로 하였다는데 구도심 지역에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원과 주차장 시설은 필수적이고 바람직한 부지 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구 원미구보건소 부지를 당초 이용계획과 같이 공원 및 주차장으로 재검토할 계획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